

2017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 워크숍 보고서

세션명	Future of Internet Governance in Asia Pacific Region and Korea - National/Regional IGF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야 하나?			
일시	2017.9.15.(금) 13:30~15:00	장소	세종대학교 광개토관 소회의실 5	
참석자	사회	김예슬(KAIST)	발제	이동만(KAIST)
	패널	Amrita Choudry(CCAOI) - Remote		Kelvin Wong(ICANN)
		Pablo Hinojosa(APNIC) - Remote		안정배(APSIG)
플로어	오병일(진보네트워크)			
플로어	약 10명 참여			

워크숍 취지	<p>한국 인터넷 도입 이후의 한국 인터넷 거버넌스 작동 방식에 대해 역사적으로 되짚어보고, 어떠한 부분이 잘 되었는지, 어떠한 부분이 부족하였는지 되돌아본다. 이와 함께 그 범위를 넓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인터넷 거버넌스 역사, APrIGF, APSIG, 인도, 중국, 일본, 호주 및 그 이외 지역에서의 IGF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아젠다를 공유하고 이전 10년간의 International Level IGF 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를 짚어보며 IGF의 '방향성'에 대해 논의해 보도록 한다.</p> <p>이와 함께 현재 한국 인터넷 거버넌스의 방식 -인터넷 관련 사회과학 및 다양한 학문적 파생에서부터(이는 기술에 관한 사회과학 담론과도 연결될 수 있다.) 정치적인 의사결정에 이르기까지- 를 돌아보고, 지역, 국제 IG와는 어떠한 관계를 맺고 돌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본다. 특히 이는 앞서 언급한 타 지역에서의 IG 현황을 짚어보고, 패널들의 의견을 첨부하여 한국만의 IG가 갖는 특성, 그리고 한국의 IG가 국제적으로 맡을 수 있는 역할 등을 논의하며 큰 그림 속에서의 한국 IG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한다. 특히 multistakeholder 모델이 각 지역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어떠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 각 지역기구들이 각 사회에서 맡고 있는 역할이 무엇이며 IG 자체가 시민 사회 및 국제 사회를 serve하기 위해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등 IG의 의미에 대해서도 논의해볼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한다.</p> <p>이를 기점으로 미래 한국 인터넷 거버넌스 및 국제 IGF가 향후 10년간 어떤 식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을것인지에 대한 큰 그림을 짚어볼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한다.</p>
-----------	---

I. 패널 토론 주제 및 배경

이 세션은 보다 메타적인 관점에서 인터넷거버넌스와 멀티스테이크홀더리즘에 접근한다. 구체적인 세션 내용으로는 1) 현재의 인터넷거버넌스가 채택하고 있는 멀티스테이크홀더 모델(정부 포함)이 국내적으로 또 아-태 지역 수준에서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에 대해 2) 시민사회에 좀 더 초점을 맞춘 인터넷 거버넌스모델의 긍정적/부정적 측면에 대해 3) NGI 및 RGI에서 논의된 또 논의될 이슈들에 대한 것이다.

세션 진행은 김예슬(KAIST)과 4명의 패널들이 서로 의견을 주고받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전반적인 패널 질문은 다음과 같다.

1. 정부를 포괄하기 시작한 현재의 멀티스тей크홀더 모델이 인터넷거버넌스가 국가 및 지역 수준에서 수행되는 방식에 어떻게 영향을 주었는가?
2. 시민사회에 좀 더 초점을 맞춘 인터넷거버넌스모델의 영향은 무엇인가? 긍정적인 측면은 무엇이고 부정적인 측면은 무엇인가?
3. IP 주소자원 거버넌스, DNS 또는 망중립성 이슈를 비롯한 어떤 종류의 문제가 NGI 및 RGI에서 논의 되었으며, 올해 NGI/RGI에서 논의 된 내용과 논의될 내용은 무엇인가?

II. 인터넷 거버넌스의 영향 및 다자간 모델에서 시민사회의 중요성

(1) 멀티스тей크 홀더 모델의 의의 (Amrita Choudry)

- 멀티스тей크 홀더 모델은 누구나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 의사결정이 오래걸리나 단점이라 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정부 중심으로 정책 결정을 하지만, 각계 분야에서 의견을 내어 논의를 한다는 것이 더 중요한 장점이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는 그 인구학적 규모로 봤을 때, 관련 이슈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되어야 한다. 참여에 있어 여러 장애물이 있지만, 진화의 과정이기 때문에 역량을 지속적으로 구축해야할 필요가 있다.

(2) 멀티스тей크 홀더 모델과 인터넷 거버넌스 포럼 (Pablo Hinojosa)

- 의사결정에 있어 보다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며, 시의 적절하고 리스크가 없어야 한다. 동의를 기반으로 해야하며 부정적 결과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한다. 인터넷이 사회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칠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거버넌스 논의에 참여한다. 포럼은 사람들에게 질문하고 의견을 공유하는 서로에게 배울 수 있는 장소이지, 의사결정을 하는 곳이 아니다. 어떤 사람들은 IGF 결과물에 대해 비난하지만, 만약 IGF가 정부의 방식대로 운영하게 된다면 그 역할은 지금과 다를 것이다. 다자간 논의는 정부주도 과정보다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멀티스тей크홀더 모델을 사용하는 단체는 많지 않지만, 미래의 UN 모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멀티스тей크 모델은 의사결정이 복잡하고 거버넌스의 개념에 대해 불명확한 부분이 많다. 하지만 IGF는 하나의 포럼이며 논의의 장이기 때문에 관련 있는 모든 당사자들이 모여 논의를 할 뿐이다. IGF가 의사결정을 하지 않더라도, 정부나 기업이 의사결정을 할 때, IGF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기반을 마련해줌으로써 도움이 될 것이다.

(3) 세계 각국의 인터넷 거버넌스 포럼 현황 (Kelvin Wong)

- 멀티스тей크홀더 모델이 잘 작동되기 위해서는 논의된 결과가 사회 특정부문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하며, 참여 당사자들이 공유하는 관심사 및 권리 등이 있어야 하고, 논의에 있어 전문성이 필요하다. 해결책을 낸다는 것 자체보다 해결책을 내는 방법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IANA 이양과 같은 경우는 글로벌 멀티스тей크 홀더의 한 가지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일본의 모범 사례를 설명하겠다. 일본은 Internet Governance Japan이라는 곳에서 두달에 한번 씩 세미나를 개최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후원을 받고자 했다. 이 프로세스가 성공적이었던 이유는 참여자들이 그 내용을 전달하고 공유함으로써 상호식으로 진행했기 때문이다.

(4) 한국 인터넷 거버넌스의 현황과 과제 (오병일 의장, 김예슬 연구원)

- 한국정부도 점점 더 많은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중요시 여기고 있다. 수많은 위원회를 때문에 위원회 공화국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 몇년 전 한국 정부에서 학계, 업계, 시민사회계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망중립성 정책위원회를 구성한 적이 있었다. 위원회에 참여하고자 했으나 정부에서 이미 시민사회 대표가 있다고 거절했다. 최근에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통신정책자문위원단을 구성하였는데, 기사에는 명단이 없어서 방송통신위원회에 문의를 하였으나 알려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며칠 후 보도자료에서 국민 의견 수렴과 정

보공개를 약속하는 내용을 담았었다. 멀티스тей크홀더 모델이란 것은 단순히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논의를 한다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개방성 및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해당 원칙을 공유하고 이에 근거하여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이 이뤄져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멀티스тей크홀더 모델이 새로운 모델이 아니라,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이 어떤 원칙에 의해 이뤄져야 할 것인지, 특히 디지털 환경이 어떻게 그런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 사람들이 인터넷 거버넌스와 관련해서 자신들의 의견을 개진하고자 열정적이었으며, 논의를 하고자 하는 이슈가 많았었다. 다양한 논의의 장과 각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다. 사실상 토론 그룹은 이미 많이 존재하고 있지만, 정부의 의사결정과 시민사회의 의사결정 차원에서 차이가 있다. 그 문제 중에 하나가 하향식 의사결정이 아니라 상향식 의사결정이었다. 한국 사회의 문제 뿐만 아니라 IGF의 경우에도 의사결정에 있어서 일부 이해관계당사자들이 대부분의 역할을 하고 있다. Amrita 가 언급한 3가지 이슈와 같이 정부중심의 의사소통 구조, 언어장벽, 민간기업들의 단기적인 목표 추구 등이 멀티스тей크홀더 모델 구현에 장애물이 되고 있다.

질의

(안정배, KIGA, Floor)

- 참여하는 다양한 이해 당사자의 관심 및 전문성이 있어야 한다고 했었는데, Regional 및 Global Level을 논외로 하더라도 접근성 차원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National level에서 가능한 부분인지 의문스럽다. 적용가능한 사례가 있는지,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궁금하다.

(Kelvin Wong, ICANN, Panel)

- 멀티스тей크홀더 모델이 잘 적용된 사례는 있어도 그 조건을 명확히 규정하기 어렵다. 국내적으로는 한국 내부의 논의과정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네팔, 스리랑카 등 다른 나라 IGF에 많이 참석해봤는데, IGF라는 틀 자체가 아직까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더 많은 커뮤니티들이 참여해야 할 것이다. 한국은 거버넌스와 관련해서 관심이 높지 않은 것 같다. 이런 곳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진하고 서로 배워가는 것이 중요하다. 스리랑카 IGF 참석 당시, 공용어가 2개라 자국 내 논의에서도 번역이 필요했었는데, 한국은 조금 더 나은 상황이다.

(오병일, 진보네트워크, Panel)

- 한국 내에서 인터넷거버넌스에 대한 논의가 적다고 하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 망중립성, 사이버 보안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 KrIGF 는 다른 이슈에 대한 논의의 장이 너무 많은 곳에 있다는 것이 고민이다. 예를 들어, 개인정보에 관한 포럼은 전국 어디서나 매일 열리고 있는데 KrIGF 이 어떤 역할을 하고 무엇에 대해 논의할지는 생각해볼 문제이다. 특히 KrIGF는 학술적인 토론을 넘어 실제 정책과정으로 연결이 되어야 의미가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정부로부터 그러한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거버넌스 조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극복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

(김보영, KISA, Floor)

- KISA 입장에서의 고민은 KISA가 KIGA와 IANA 등과 비슷한 일을 하는 것 같은데 그 과정을 어떻게 포장을 하는지이다. 어떤 청중을 대상으로 하고 그들을 어떻게 모을 것인지가 고민이다. 주요 서양중심의 이슈를 다루고 있는 각 국가의 고유한 관심사가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국가마다 다른 관심사를 어떻게 Regional, Global Level로 연결 시킬지를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Pablo, Panel)

- 회의에서 각 국가를 대표하는 것처럼 누가 각 이해관계자를 대표할지가 문제가 된다. 특히,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는 대표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각 분야별 대표가 잘 정해져야 할 것이다.

(Amrita, Panel)

- IGF가 지역별 이슈를 잘 개발해서 이에 대한 대표성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인도는 망중립성 위원회가 있고, 지역별로 논문을 공모했었는데 각 이해관계자들이 논문을 선정하여 좋은 결과를 얻었다. IGF에서는 실제적 결과물이 나오는 것이 중요한데, 작년 IGF에서는 사이버 안보 등에서 모범사례(Best Practice)가 도출되기도 했다.

(김예슬 연구원, Panel)

- IGF 내에서 이슈가 없는게 아니라 너무 많은 이슈가 있어서 문제인 것에 동의한다. 특히, 일반 대중 보다는 학계에서 주로 다뤄지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참여에 대한 접근성이 낮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GF와 같은 공론의 장이 세계 각지에서 많이 생겨나고 논의가 진행되면서 KrIGF도 그러한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 각 나라별로 관심사가 다르기 때문에 그 나라에 적합한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 더불어 인터넷 자체가 기술적인 이슈가 많기 때문에, 기술적인 전문성이 없다면 인터넷 거버넌스에 대한 논의에 참여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몇몇 주요이해관계자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다.

(이동만 교수, Panel)

- (1) 모든 사람들은 다른 이해관계와 의제를 가지고 있지만 틀린게 아니다.
- (2) 지역간 다른 의제가 있고, 국가별 기술/사회에 따른 의제가 있다
- (3) 정보공유의 장을 확대해서 의견 공유를 지속해야할 필요가 있다.

**패널
입장
요약**

(1) Amrita Choudry (CCAOI)

- 멀티스тей크홀더리즘에서는 누구나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함. 아시아 내 각 국가별 차이도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논의해야 할 부분 역시 존재함. 참여함에 있어서 언어장벽 등 어느 정도 장애요소로 작용하는 것들은 계속적으로 보완해나가야 함.

(2) Pablo Hinojasa (APNIC)

- 사무총장 Paul Wilson이 말하길 멀티스тей크홀더리즘은 1. 시의적절해야 하며 2. 정확해야 하고 3. 리스크가 낮아야 하고 4. 많은 동의를 얻고자해야 하며 5. 부정적 결과가 나타나면 안된다고 함. 이렇게 멀티스тей크홀더 입각해서 규칙을 만들고 프로세스를 지정하는 것은 힘든 과정이지만 **IGF**가 의사결정을 하지 않는 토론의 자리라고 할지라도 정부가 의사결정을 할 때 정보를 제공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을 전달하는 장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함.

(3) Kelvin Wong(ICANN)

- 멀티스тей크홀더리즘이 잘 작동하기 위해서는 1)논의한 결과가 사회의 특정부분에 있어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어야 함 2)참여하는 이해당사자들이 공유하고 있는 관심사나 권리가 있어야 함 3)이러한 이슈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전문성이 필요함. **IANA Transition**이 글로벌 멀티스тей크홀더에 있어서 **가장 좋은 모델**임.

(4) 오병일(진보네트워크)

- 멀티스тей크홀더가 단지 다양한 관계자와 이야기를 하는 것에서 그치면 안됨. 브라질에서 열렸던 인터넷거버넌스 회의에서도 개방성, 투명성, 실질적 참여 등에 대한 원칙들을 선언했었음. 멀티스тей크홀더는 이러한 **원칙들을 공유하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멀티스тей크 모델이 새로운 모델**이라기보다는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이 디지털 환경에서 어떻게 더 민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함.

(5) 김예슬(KAIST)

한국인터넷거버넌스 포럼 같은 경우에 하향식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문제가 있음. 그리고 이것은 비단 한국사회의 문제뿐 만이 아니고 **IGF에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서는 일부 이해당사자들의 목소리가 높은 것이 사실**임. 이러한 문제들 중에 또 **지역 내에서 공통적인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함.

Ⅲ. 결론

이해당사자들 간에 각자의 IG 이슈가 있고, 지역별로 또 국가별로 다양한 이슈가 발생함. 따라서 그러한 정보들을 공유할 수 있는 장을 만드는 것이 중요할 것임.